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막을 수는 없는가?

# 철저한 확인이 최선



고 영 옥

(경기도 시흥군 군포읍 당리 313-1)

해가 거의 질 무렵 갑자기 “핑”하며 하늘높이 치솟는 불길. 그것은 순식간의 일이었다. 하체에 불이 붙은 채로 한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땅에 뒹굴었다.

이이를 엮고 마당에서 남편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바로 내 앞에서 벌어진 무서운 광경에 나는 어안이 멍멍해 입만 벌린 채로 서있어야만 했다. 그것은 내 주위에 서 있던 몇몇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모두를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마음에 “어찌지? 아이고 어찌면 좋아!”하는 말만 되풀이 할 뿐 이러

한 상황에서 취해야 할 행동은 취하지 못하고 있었다.

누군가가 제정신이 들었는지 허겁지겁 뛰어 가더니 119에 전화를 하고, 곧 사이렌 소리와 함께 소방차가 도착했다. 그날따라 남서풍이 세차게 불어 불길은 더욱 높아지고 있었다.

주택은 다섯 가구가 나란히 있고 그뒤에 고물상의 고물들이 많이 있었다. 그 남자는 119구급차에 실려 가면서 “저... 저안에 우리 집사람이 있어요... 어서...”하면서 괴롭게 소리지르고 있었다.

현장에는 어디서 모였는지 놀라울 정도로 많은 구경꾼들이 몰려들었다. 소방차 지붕의 붉은 전등 불빛이 불길을 잡느라 분주하게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소방대원들과 빙 둘러 서 있는 구경꾼들의 상기된 얼굴들을 돌아가며 비취주고 있었다.

앞에서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하는말이 “저안에 아직 여자가 있다는데... 그 여자가 임신부라면서요?”

“어이구 저걸 어찌! 그래 몸이 무거워서 빨리 빠져나오지 못했나 보지?”

그 순간 한 여자가 울부짖으며 뛰어왔다. 불길이 치솟는 건물 속으로 뛰어 들려는 것을 소방대원들이 만류하자 그만 주저앉아 통곡하며 하는 말이 결혼식을 이틀 앞둔 여자였다. 패물이며 갖가지 신혼을 위해 장

만해 봉은 살림이 들어 있다는 것이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남의 일만 같지가 않았다. 주위의 사람들도 그러한 마음일진대 하물며 참변을 당한 당사자들은 어떻겠는가.

순식간에 벌어진 이 무서운 화재의 현장을 직접 본 나는 너무 큰 충격에 몸이 떨려 제대로 몸을 가눌 수가 없었다.

산후 TV뉴스나 신문에서 스킷처럼 관심없이 보아왔던 화재기사—그것은 마치 상업광고만큼이나 무심하게 읽어버렸던 나와는 무관한 기사가 아니었던가.

꽃들의 불꽃이 아름다워 일부러 전등을 끄고 그 불꽃을 바라보며 감상에 젖어보던 소녀시절이 있었고, 또 석유난로의 파란 불꽃에 매료되어 장시간 바라보며 시선에 젖어보곤 하던 불. 내게는 어찌면 낭만을 갖게했던 친근한 것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화재의 현상은 너무 참혹하고 무서운 것이었다. 더구나 고물상에 쌓인 각종 가연성물질을 때문에 불길은 더욱 강했고 무심하게 번져갔다.

밤을 훌리며 이리저리 뛰는 소방대원들에 의해 어느정도 불길이 잠긴 것은 30분 가량이 흐른 뒤였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그 불속에 만삭이 된 임부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갇혀 있는 것이었다. 현장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과 안타까운 심정으로 임부의 구출을 바라며 발을 구르고 있었다. 두사람의 소방대원이 들 것을 들고 들어간 문쪽으로 사람들의 눈길은 고정되어 있었고, 곧 이어 들것에 실려나온 임부는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으며 유난히 눈에 띄는 배부분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었다. 119구급차가 임부를 신고 병원으로 가며 내는 사이렌 소리가 아주 들리지 않을 때까지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자꾸만 안타까움으로 아파오는 마음을 어찌할 수 없었다.

집에 돌아와 궁금해하는 남편에게 조금전의 일을 얘기하고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가스레인지를, 전기끓리고, 전기배선상태 등을 확인하기에 바빴다. 화재는 예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방하는 것만이 최선이라는 것을 잠시전의 일로 절실히 깨달았던 때문이다. 조금전의 화재사건이 아니었던들 여전히 게을리했을 일들이 아니었던가?

나중에 밝혀진 사고의 원인은 어처구니 없게도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난 남편이 화침에 석유난로를 건어차 넘어진 난로로 남편의 몸에 석유가 튀면서

불이 붙었고, 부인도 그저 당황만 하다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채 옷에 불이 붙어 출산을 오늘 내일 하던 아기와 함께 그만 죽고 말았다는 것이다. 결혼 삼년만에 가까스로 아기를 갖게되어 애지중지 열달의 고통을 기쁨으로 참아온 그 여인은 얼마나 억울할 것이며, 순간적인 실수로 사랑하는 아내와 기다렸던 아기마저 잃게된 그 남자는 또 화상을 입은 채 남은 세상을 얼마나 슬프게 살아갈 것인가 생각하니 가슴이 울렁거리고 그들이 너무 불쌍해서 나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이제 누구를 탓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다. 주위에서 이 끔찍한 사건을 본 많은 사람들은 남의 일같이 생각하지 말고, 언제든지 조심을 게을리 하면 나 자신에게도 무서운 재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이런 기회에 뼈속깊이 느꼈으리라 생각한다.

새로 태어나는 아기에게 진심으로 축복을 받고 있었는데 바로 이웃에서 그런 비극이 벌어지다니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 “그 부인도 부인이지만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어야만 했던 아기가 너무나 불쌍해요. 결혼 삼년만에 어렵게 가진 아기라던데...”

가끔 길에서 마주칠 때마다 살며시 웃는, 안경 너머의 눈빛이 유순하고 착해 보이던 그 부인의 모습이 눈 앞에 선연히 떠올라 주님께 그들의 영혼을 보살피 주실 것을 기도드린다.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 견어찬 석유난로가 이처럼 큰 불행의 씨가 될 줄이야.

아침에 일어나서 화재 현장을 보니 한숨 밖에 나오질 않았다. 앙상하게 타다 남은 목재와 전기줄이 더욱더 내 가슴을 아프게 조여왔다. 무엇보다 이제부터는 불조심 예방책에 힘써야 할 것이다. 그래서 것처럼 알뜰히 지켜온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다짐을 마음에 두어본다.

잠시전에 확인하고 온 가스차단기와 연탄 불위의 빨래줄에 걸린 빨래들을 한쪽으로 밀어 놓은 것을 다시 확인하러 부엌으로 나가는데 잠든 줄 알았던 남편이 “어디 가?”하고 묻는다.

“가스 확인하러요.”

부엌쪽으로 가는 내 등에다 대고 남편은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가스확인은 조금전에 내가 했어.”

이로써 우리집 조그만 가스통은 10분동안 세번째 확인된 셈이 되었다.